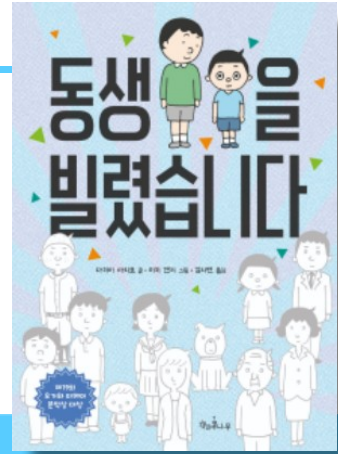


동생을 빌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19회 오가와 미메이 문학상 대상 수상작. 신선한 SF적 설정 속에 현실적인 가족애를 담아낸 감동 동화입니다. 늘 동생을 원하던 외동아들 '겐타'가 비밀스러운 가게에서 남동생 로봇 '쓰토무'를 빌리며 벌어지는 소동을 그립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소외감과 "형이니까 참으라"는 압박에 상처받은 겐타는 훗김에 동생을 반납해 버립니다. 동생이 사라진 뒤에야 함께했던 추억과 소중함을 깨달은 겐타는 뒤늦게 후회하지만, 쓰토무는 이미 기억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비록 로봇이었지만 형을 향한 쓰토무의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마지막 편지는 독자들에게 뭉클한 반전과 눈물을 선사합니다. 아픈 이별을 발판 삼아 새로 태어날 진짜 동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겐타의 모습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형'의 성장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기본 정보



다키미 사치요 글
미키 겐지 그림
김지연 옮김
14,000원, 112쪽
2026년 07월 10일



국내도서 > 어린이 > 장편동화
국내도서 > 어린이 > 3-4학년
> 장편동화
국내도서 > 어린이 > 5-6학년
> 장편동화



#동생 #형제애 #로봇
#SF동화 #성장동화



3-2 국어 1. 작품을 보고 느낀
감을 나누어요
4-2 국어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선생님 도움말

혹시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지금 있는 동생이 가끔은 너무 얄미워서 동생 없는 세상에서 딱 하루만이라도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이 책의 주인공 '겐타'도 늘 동생이 생기길 바라다가, 우연히 비밀 가게에서 진짜 사람 같은 남동생 로봇 '쓰토무'를 빌리게 된답니다. 처음엔 꿈만 같았지만 겐타는 곧 동생에게 장난감을 양보해야 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은 서운함에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요. 책을 읽으면서 겐타가 느낀 소외감이나 억울함에 깊이 공감해 보고, 나라면 귀찮아진 동생을 정말로 가게에 반납했을지 진지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겐타가 동생을 잃어버린 뒤에야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과 로봇이었지만 진짜 마음을 담아 보낸 쓰토무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평소 내 곁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책의 내용을 예측하며 흥미를 유발한다.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야기해 보세요.

- *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물건이 아닌 '사람(동생)을 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 표지 그림 속 두 아이의 표정과 몸짓은 어때 보이나요?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아 보이나요, 아니면 갈등이 있어 보이나요?
- * 만약 원하는 성격이나 나이의 동생을 마음대로 빌릴 수 있다면 어떤 동생을 빌리고 싶나요?

내가 빌리고 싶은 '동생 로봇'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 보세요.



목표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한다.

책을 읽으면서 다음 질문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써 보세요.

1. 겐타가 전 재산인 용돈을 털어 동생 로봇 '쓰토무'를 빌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겐타는 쓰토무가 평소 자기가 앉던 엄마 무릎을 빼앗아 앉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나라면 그때 부모님께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 겐타는 화가 날 때마다 쓰토무에게 "가게로 돌려보낸다."라는 '마법의 언어'를 썼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쓰토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목표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능력을 기른다.

만약 내가 로봇 가게의 주인이라면, 동생을 빌리러 온 아이들에게 꼭 지켜야 할 '특별한 규칙 3가지'를 무엇으로 정하고 싶나요?

1.

2.

3.

쓰토무의 마음을 달래주는 '진심 어린 사과 편지' 쓰기

겐타의 입장에서 동생 로봇 '쓰토무'가 남기고 간 편지에 답장을 써 보세요.

